

	<h1>보도설명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21. 2. 1.(월) / 총 3매	
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나기호, 사무관 윤주석, 주무관 이덕천 • ☎ (044) 201-3826, 3830	
보도 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버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자체버스업계 등 관계기관 회의 개최 - 버스 문 끼임 사고 등 버스안전사고 예방 점검 철저 당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파주시 시내버스 문 끼임 사고 등 각종 버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일(2월 1일) 17개 시·도, 버스업계,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.
 - 지난 1월 19일 파주시에서 시내버스를 하차하던 승객이 뒷문에 끼어 넘어지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,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1일 지자체 및 버스업계에 현장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, 오늘(2월 1일) 회의를 통해 시·도 및 버스연합회 등과 버스안전사고 예방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- 금일(2월 1일)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버스업계와 파주시 사고 경위 등을 공유하고, 관계기관별 버스안전사고 예방 계획 등을 점검하였다.
 - 17개 시·도는 승하차 센서 등 버스 차량의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일제 점검하고,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·점검을 강화하고, 문제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조치를 통해 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개선하기로 하였다.

- 특히,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「버스업체 서비스 안전등급」 공시 제도를 도입해, 안전등급 하위 업체에 노선신설 및 증차 제한, 신규 한정면허 불이익과 중대사고 유발 업체에 인센티브 재정지원금 50% 삭감조치 등 행정·재정적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.
- 대전의 경우에는 자체 운송사업자 평가항목에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 건수, 해당 업체의 사고관리 사항 등을 반영하고, 시민모니터단이 점검한 운수종사자의 운행행태 및 차량 편의성도 평가요소에 반영할 예정이다.
- 버스업계는 지자체의 차량 안전장치 작동상태 일제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, 사고다발 및 신규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안전체험교육(교통안전공단 위탁)을 강화하며, 적정 배차간격 유지·운전자 휴식 시간 준수 등 버스운행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버스업계의 자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.
- 교통안전공단은 버스 차량 안전장치(센서작동 여부 및 위치 적정성 등),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 등 교통안전사고 항목을 집중 점검함으로써, 지자체의 운송사업자 일제 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“승객 승하차 확인 후 출발”을 포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,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제고, 사고 유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처벌 강화 등 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다.
- 이와 함께, 국토교통부는 올해 2~3월 중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차량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,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,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.

-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“시내버스는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,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면서,
 - “지자체, 버스업계,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버스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, 지자체, 버스업계,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조치를 점검하는 등 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사무관 윤주석(☎044-201-38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